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적정인력 충원! 비정규직 해결! 의료민영화 반대! 보호자 없는 병원! 건강보험 강화!



# 교섭속보

## 16호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홍세나

## 파업전야제 D-2 | 파업 D-3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율 80.2% 파업 찬성율 93.3%

# 조합원이 결심했다! 의료원은 타결안을 제시하라!

투표율 80.2% 찬성율 93.3%

전 조합원 간담회 통해 파업조직화 최고조!

노동조합이 지난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재적	2601명
투표(투표율)	2086명(80.2%)
찬성(찬성률)	1947표(93.3%)
반대(반대율)	136표(6.5%)
무효	3표

조합원 2600명 중 208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3개 병원 휴직자를 제외하면 투표율은 더 높은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찬성률은 93.3%로 노동조합 역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찬성률 중 최고 찬성률로 이는 조합원들의 지금까지 참아왔던 의료원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일 뿐 아니라 파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전 조합원 간담회를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이제는 파업을 해야 할 때’, ‘병원이 돈 벌어서 직원들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며 쓴소리를 뱉으며 파업전야제와 파업 날짜를 꼼꼼하게 챙기는 등 참가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지부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조출 선전전과 파업전야제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1차 회의 진행.

노사 입장 변화 전혀 없어.

중노위, 고대가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 하라.

우리지부는 지난 9월 14일(목) 세종시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이하 중노위) 1차 조정회의에 참가했다.

조정위원으로는 조영선의장, 최수용위원, 안경덕위원이 참석했다. 사측 참가자는 김효명 의무부총장, 김호용 사무국장, 서성구 노사협력팀장등이 참가했으며 노측 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부위원장,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 홍세나 지부장, 노재욱 수석부지부장등이 참가했다.

1차 회의는 중노위 위원들에게 노사 요구안 및 입장에 대해 피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중노위 위원들과 노사 개인 면담 30분가량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노위 위원들은 노사에 ‘고대가 기준이 되고 있으며 타 병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고대가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회의는 약 1시간가량 진행했으며, 2차 조정회의는 9월 20일(수)에 예정되어 있다.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의료원은 타결안을 가져와라!

우리지부는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병원을 위하는지 전달해왔다. 그리고 2017년 1조 클럽 입성이라는 공을 올린 것은 의료원과 직원들이 함께 만든 것임을 알아달라고 외쳐왔다.

의료원은 이제 오늘 열릴 실무교섭에서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파업전야제까지2일, 파업까지 3일이 남았다.

노사가 제각각 열 걸음 걸을 게 아니라

함께 큰 한 걸음 내딛는 2017년을 만들자.

지난 세월 속에 대립적 노사관계 적대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러한 노사관계는 의료원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것을 알기에 2017년을 시작으로 노사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개선하기 위한 힘든 첫 걸음을 내딛고자 제안한 것이다.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길 걷지 말고 직원들을 위해 노사가 한 데 뭉쳐 큰 한 걸음을 내딛자.

## 기계보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먼저! 2017 투쟁승리 조합원 조기출근 선전전

# 1일차

고대의료원지부 교섭 투쟁 승리를 위해 조합원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건물과 기계에 올인하는 병원을 향해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먼저이기 위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노사 함께 거둔 성과를 노사가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늘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하신 조합원님들! 내일의 태양이 또 뜬답니다~

매일 오전 7시 30분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